아테네 헌장(1931)의 재고

Reconsideration of the Athens Charter(1931)

최 병 하*

Choi, Byung-Ha

(계명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객원연구원)

Abstract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onclusions of the Athens conference that has so far contributed to the conservation world. It is normally called the conclusions of the Athens conference as the Athens charter. But the conclusions of the Athens are not as same as the Athens Charter regarding the contents. The former had more valuable contents than the latter regarding historic monuments. And the report of the Athens conference including 56 articles and 500 pages with 55 photos was published in 1933 by the International Museums Office. Bu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report of the Athens conference. Therefore the point I want to make is to review to the report in order to understand the agenda of the conference and to examine the Anastylis in Acropolis. In conclusion, these agendas and the articles in the report show us that the conference was sort of milestone with some advanced modern philosophical and technical concepts about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historic monuments. Also when the term of anastylis turns to reconstruction in archaeological sites, we are going to face with the problems of authenticity.

주제어 : 아테네 헌장, 기념물, 보존, 수복, 아나스티로시스

Keywords: Athens Charter, Monument, Conservation, Restoration, Anastyli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역사적 건축기념물을 국제적인 시야와 인식 속에서 보호하려는 철학적·이론적 논의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특히 이와 관련된 국제적 문서, 권고, 헌장 등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문건은 1999년까지 약 175건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그 중에서 1931년 국제지적협력기관(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Cooperation: 이하 「IIIC」로 약칭함)의 한 사업부서인 국제박물관사무소(The International

Museums Office: 이하 「IMO」로 약칭함)가 그리스 공공 교육부의 지원 하에 아테네에서 예술적·역사적 기념물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국제전문가 회의(이하 ‘아테네회의’로 약칭함)²⁾를 최초로 개최하면서, 그 결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테네 헌장이 만들어진다.

또 이 회의는 시기적으로 두 세계대전 사이(1918-1940)에 개최되어, 당시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건축기념물의 수복과 보존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 IMO가 기획한 것이었다.

이 회의의 핵심적 의의는 문화유산의 주요개념과 원칙을 국제적으로 처음 합의한 점에 있었다.³⁾ 또 참가자들

* Corresponding Author : choikhmer@hotmail.com

1) 로자리아는 이와 관련된 국제적 문건을 조사하면서 1939년까지 약 7건, 1940-69년 사이에 28건, 1970-79년 사이에 약 23건, 1980-89년 사이에 약 38건, 1990-99년 사이에 약 76건을 지적하고 있다. Rosalia Varoli-Piazza, *Riflessioni sulle Carte, Raccomandazioni e Documenti internazionali*, Monumenti in bronzo all'aperto: esperienze di conservazione a confronto, Nardini Editore, 2004, p.24

2) 정식명칭은 「La Conference internationale d'experts pour la protection et la conservation des monuments d'art et d'histoire」이다.

3) 박소현,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국제 헌장의 흐름, 1931년의 아테네헌장에서부터 2008년의 문화루트헌장에 이르기까지」, 『이코모스 헌장 선언문집』,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2010, 8쪽

박소현 교수는 아테네 헌장의 의의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1931년 아테네회의에서 역사적 건물과 기념물의 복원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범국가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국제원칙으

이 발표하거나 논의한 내용들은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와 보존 분야에서 당시 획기적인 이정표로서 그 중요성은 일찍이 지적된 바 있지만⁴⁾, 이 회의에서 합의된 결론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다지 국내에 소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아테네 현장은 내용상, 발전 계보상 보더라도 1964년 베니스 현장의 선구적인 성격을 지닌 것임에는 불구하고⁵⁾, 웬지 모르게 베니스 현장에 비하여 아테네 현장이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 중에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⁶⁾

한편 이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1933년 IMO가 보고서 형식으로 프랑스어로 출판한 『예술적·역사적 기념물의 보존』(이하 『보고서』로 약칭함)이 출판됨으로써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⁷⁾ 이것은 아테네회의의 결론과 함께, 회의 과정에서 발표된 56건의 보고를 포함하고 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보고서는 500페이지의 문서와 55개의 도판으로 구성된 두꺼운 책으로 500부가 한정 출판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회의 후 1933년에 출판되기 이전에 IMO의 기관지 『무제이옹Mouseion』에 수차례에 걸쳐 먼저 게재되었다. 특히 『보고서』에 나타난 아테네회의의 결론은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는 「총론」과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아크로폴리스 기념물의 아나

로서 중요한 사항들이 처음 소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테네 현장의 핵심적 의의는 문화유산의 주요개념과 원칙을 국제적으로 처음 합의한 점에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4) Cristina Iamandi, *The Charters of Athens of 1931 and 1933, Coincidence, controversy and convergenc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vol.2, 1997, p.17~28; Rosa Anna Genovese, *Sopra alcuni contributi metodologici e tecnici offerti in occasione della conferenza di Atene(1931)*, Restauro, no.43, 1979, p.77~134; Françoise Choay, *The invention of the historic monu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유카 요킬레토 지음, 최병하 옮김,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역사, 과거와 현재』, 기문당, 2009, 412~413쪽

5) 1964년 이탈리아 정부는 보존건축가, 보존기술자를 베니스에 초대하여 「기념물 및 유적의 보존과 수복을 위한 국제현장」을 마련한다. 61개국으로부터 600인의 참가자와 유네스코, ICCROM, ICOM, 유럽회의 등 국제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요킬레토는 《베니스 현장》을 1931년의 《아테네 현장》을 개정하여 초안한 것으로, 주로 조반노니가 작성한 이탈리아의 수복현장(Carta del Restauro italiano)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유카 요킬레토 지음, 최병하 옮김, 앞의 책, 419쪽

6) 토마스제우스키는 그 이유를 아테네회의에 관한 서류가 불명했던 점과 아테네 현장을 만든 주인공들과 전파자 대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죽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Andrzej Tomaszewski, *From Athens 1931 to Venice 1964. History and actualit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COMOS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for the Theory and the Philosophy of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2008 Vienna, Austria, p.107~114

7) Office International des Musées, *La Conservation des Monuments d'Art et d'Histoire*, Paris, 1933. 회의의 결론은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다. 회의 공식언어는 프랑스어였지만, 그 밖의 언어들은 번역상 오류가 다소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Fig.1 The cover of La conservation des monuments d'art & d'histoire(left) and The cover of Mouseion published by the IMO(right)

스티로시스에 관한 보고」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 여기에서 「총론」은 7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역사적 기념건조물의 복원에 관한 아테네 현장(1931)」으로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다.⁹⁾

최근 일본에서는 아테네 현장에 대한 내용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테네회의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분적인 성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또 몇 해 전 프랑스 쇼에이 교수가 발간한 소책자에서는 아테네회의를 새로운 문제의 시작과 새로운 진보의 출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아테네회의 참가자들의 발표항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몇몇 주요한 발표 원고만을 게재하고 있지만, 당시 참가자들의 발표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¹¹⁾

게다가 「아크로폴리스 기념물의 아나스티로시스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 IMO가 어떤 취지로 이 회의를 개최했는지, 그리고 이 회의의 결과가 IMO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연구결과가 없는 형편이다.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테네회의의 개최 배경과 발표내용들을 고찰함으로써 어떻게 회의의 「총론」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아테네회의의 역사적 의의를 재고하며, 더 나아가 IMO의 역

8) 회의 결론(Conclusions de la Conférence)은 A.총론(A. Conclusions Générales)과 B.아크로폴리스 기념물의 아나스티로시스에 관한 보고(Compte Rendu sur l'Anastylose des monuments de l'Acropole)로 구성되어 있다.

9)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이코모스 현장 선언문집』, 2010, 12~19쪽

10) 吉田鋼市, 「「アテネ憲章」(1931年)に見られる植生への言及」,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公園梗概集(關東) 2011年8月, p.907~908; 西村幸夫, 『都市保全計畫』, 東京大學出版會, 2004, p.751~52; 池龜彩, 「解題 アテネ憲章(1931)」, 『文化遺産保護憲章』, 日本イコモス國內委員會憲章小委員會, 1999, p.144~146

11) Françoise Choay, *La Conférence d'Athènes. Sur la conservation artistique et historique des monuments(1931)*, Les Éditions de l'imprimeur, 2002

ISSN 1588-1142(Print)

할과 활동이 아테네회의와 그 후에 미친 영향과 그 의의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테네회의의 성과의 하나로서 당시 보고되었지만, 지금까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아크로폴리스 기념물의 아나스티로시스에 관한 보고」를 고찰함으로써 아테네 결론에서 나타난 아나스티로시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33년 IMO가 아테네회의의 결과물로 출판한 『보고서』와 기관지 『무제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회의 직후에 발표된 두 편의 보고 논문을 참고하기로 한다.¹²⁾

2. 아테네회의의 배경

2-1. IMO의 창설과 활동범위

1922년 국제연맹의 자문기관으로서 국제지적협력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Cooperation)가 설립되었다. 그 후 프랑스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1926년 파리로 옮겨져 IIIC로서 재설립되면서, 사실상 국제지적협력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특히 국제연맹의 예술·문학 소위원회 위원인 앙리 포시옹이 1925년 IMO의 설립구상을 제안했다.¹³⁾ 그리고 국제지적협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제연맹 총회는 1926년 IIIC의 한 사업부서로서 IMO의 설립을 결정했다.

IMO의 초창기 활동의 주요관심은 전적으로 예술품과 박물관의 촉진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IMO의 규정 제2항에는 대중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역사적·고고학적으로 흥미로운 건물과 예술작품, 컬렉션, 박물관에 관계된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적혀있어 장래적으로 IMO의 폭넓은 활동범위를 예견할 수 있다.¹⁴⁾

2-2. 아테네회의의 개최 배경

IMO에 의한 예술작품의 보존과 관련된 첫 국제회의는 이탈리아 지적협력위원회의 협조로 1930년10월 로마

에서 개최된 <http://dx.doi.org/10.7738/JAH.2012.21.4.025> 예술작품의 보존과 실험에 대한 과학적 방법의 연구에 관한 것이었다.¹⁵⁾ 이것은 미술품, 즉 조각과 회화작품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의 후에 성격이 다른 역사적·예술적 기념물(건축기념물)의 보존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룰 또 다른 회의의 개최요청이 쇄도했다. 그리고 IMO는 규정에 나타난 것처럼 회화, 조각, 건축과 관련된 보존의 문제점들을 한 번씩 다룰 필요가 있었다.¹⁶⁾

한편 아테네회의에 앞서 건축기념물의 보존에 관한 국제회의 중에서 19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6회 국제건축가회의에서 두 번째 주제인 「건축기념물의 수복과 보존」을 발표하여 권고안으로 채택된 루이 크로케의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¹⁷⁾ 그러나 여기에서는 건축기념물의 보존 방법과 구체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또 19세기 후반부터는 크로케가 지적한 죽은 기념물인 고대유적지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 증가하면서,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현상보존이 아닌, 보강, 수복, 복원에 대한 방법론을 고려할 필요가 생겼다.

또 동시에 시기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두되기 시작한 국제협력의 관점 하에서, 도시화, 개인주의(사유권),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축기념물을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여러 조건의 변화에 IMO가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건축기념물의 보호방법을 의견교환하고, 이에 대한 공통적인 원칙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기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때마침 그리스 공공교육부가 아테네에서 회의를 유치하려는 데에는 당시 1894년 그리스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유적들을 수복하기 위해, 특히 바라노스(1860-1942)에 의해 진행 중이었지만, 국제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복원 공사의 한 방법인 아나스티로시스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얻으려는 그리스의 숨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¹⁸⁾

15) *Conclusion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study of scientific methods for the examination and preservation of works of art*, Rome, October 13th to 17th, 1930, Mouseion, n°13-14, office international des musées, Paris, 1931, p.162~164

16) *L'activité de l'office international des musées*, Mouseion, n°16, office international des musées, Paris, 1931, p.102~103

17) 루이 크로케(L. Cloquet:1849-1920)는 1904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6차 건축가 국제회의의 두 번째 제목인 「건축기념물의 수복과 보존」에서 기념물을 죽은 기념물과 살아있는 기념물로 나누어, 전자는 보존에, 후자는 수복에 중점을 두는 생각을 피력했다. 특히 죽은 기념물의 폐허화를 막기 위해서는 보강이 필요하고, 수복에서 기념건축물의 양식적 통일과 자격 있는 건축가에 의해 수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내용은 권고안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죽은 기념물에 대한 보강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Report of the secretary of the Institute, The Sixth international congress of architects, 1904, Madrid*, Journal of RIBA, 23 April 1904, p.343~346

12) G. Giovannoni, *La Conferenza internazionale di Atene pel restauro dei monumenti*, Bollettino d'Arte, Fasc. IX, Roma, 1932, p.408~420; L. Hautecoeur, *Conférence internationale d'experts pour la protection et la conservation des monuments d'art et d'histoire*, Gazette des Beaux Arts, Paris, 1932, n°106, p.161~163

13) *L'œuvre de coopération intellectuelle et l'office international des musées*, Mouseion, n°1 avril, 1927, p.3

14) *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museums office*, Mouseion, n°13-14, office international des musées, Paris 1931, p.171 "Article II - The International museums Office shall concern itself with museums, collections and works of art, buildings of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interest, and works of popular art"

Tab.1 The proposed agendas of the Athens conference, the arranged contents in the report and the final contents in the general conclusion

	The proposed agendas	The arranged contents in the report (the number of article)	The final contents in the general conclusion
I	Statement of various legislative provisions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monuments of artistic and historical interest: a) Fundamental principles; b) State powers and obligations in so far as concerns monuments belonging to the State, to public bodies or to individuals; c) Methods and procedure in the matter of classification.	II.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measures regarding historical monuments (7)	II.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measures regarding historical monuments
II	Restoration of monuments - General principles - Comparative study of principles.	I. Doctrines - General principles (9)	I. Doctrines. General principles
III	Damage resulting from age and atmospheric influences. Study of deterioration and dilapidation occurring in different parts of a fabric and the disintegration or decay of materials. - Typical examples. Examination of works undertaken for the consolidation, restoration, upkeep or protection of a building. Materials to be used for the repairing of visible and invisible parts of monuments. Is the use of new materials to be recommended? Technical processes for the protection of old monuments against destructive agents (microorganisms, vegetation, etc.). Preservation of statuary and ornamental sculpture.	IV. Restoration materials (3) V. The deterioration of ancient monuments. Scientific study of methods of treatment (8) VI. The technique of conservation. Characteristic examples (20)	IV. Restoration materials V. The deterioration of ancient monuments VI. The technique of conservation
IV	Surroundings of monuments. - Protection of sites. - Establishment of aesthetic and archaeological servitude. Clearing of the immediate surroundings of monuments. The part played by vegetation as an aesthetic factor in the surroundings of monuments.	III. Aesthetic enhancement of ancient monument (5)	III. Aesthetic enhancement of ancient monument
V	The utilization of monuments. - Uses which may be dangerous to their safety or incompatible with their artistic and historical character.		
VI	Special points on which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International Museums Office initiate study and action	VII. The conservation of monument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4)	VII. The conservation of monument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2-3. 아테네회의의 개최

IMO는 그리스 공공교육부의 협력 하에서 1931년 10월 「예술적·역사적 기념물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국제 전문가 회의」를 아테네에서 10일간(21-30일)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이 회의는 구스타보 조반노니(Gustavo Giovannoni: 1873-1947)와 폴 레옹(Paul Léon: 1874-1962)이 공동의장을 맡았고, 24개국에서 117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참가자 대부분은 아테네에 설립된 미국 고고학연구소의 참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인들이었기 때문에, 아테네회의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될 수 없었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¹⁸⁾

그리고 이 회의의 참가자들은 고고학자, 건축가, 보존 건축가, 박물관 보존가, 예술사학자, 역사적 기념물과 골동품 보존담당 공무원 등이었다.²⁰⁾ 그렇기만 실제로는 회의의 주요대상인 건축기념물의 특성상 발표자의 대부분은 고고학자와 건축가들로 주축 되어있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는 이 두 분야에 대한 공통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했었다.

특히 이 회의의 개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여섯 가지의 의제들을 사전에 정해서 참가자들에게 해당분야의 원고를 작성하도록 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¹⁾

또 회의의 프로그램에는 에게 해를 크루즈 여행하면서 미케네, 델로스, 크레타 섬의 파이스토스와 크노소스의 유적을 견학하고, 최종적으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다프네 수도원, 에베소 발굴현장의 견학도 포함하고 있어서, 회의 참석자들은 당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던 여러 수복 및 복원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²²⁾

3. 아테네회의 의제와 발표내용

3-1. 아테네회의의 의제

아테네회의를 위해 제안된 여섯 의제를 살펴보면, IMO가 이 회의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성과를 짐작할 수 있다. 즉 각각의 의제에 대해서 단시간에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도 IMO가 역사적·예술적 기념물의 보존을 위해

18) 1905년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국제고고학회의에서 아크로폴리스의 수복에 대한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당시 국제적인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유카 요킬레토 지음, 최병하 옮김, 앞의 책, 286쪽

19) Françoise Choay, 앞의 책, p.116

20) 참가국별로 보고 편수는 이탈리아(21), 프랑스(14), 벨기에(5), 그리스(4), 스페인(3), 네덜란드(3), 오스트리아(2), 영국(2), 폴란드(2), 독일(1)이 있었다. 참가국 중에 발표하지 않은 국가로서는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 터키, 유고슬로비아 등이 있었다. Françoise Choay, 앞의 책, p.7

21) G. Giovannoni, 앞의 책, p.409

22) 이러한 사실은 아테네 현장 VII. 기념물의 보존과 국제협력 항목에서 엿볼 수 있다. “The members of the conference, after having visited in the course of their deliberations and during the study cruise..., unanimously paid a tribute to the Greek government, ...”

ISSN 1588-1142(Print)

어떤 부문에 업무를 두고 향후의 활동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활동범위의 설정이라는 성격이 우선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를 위해 각각의 의제에 대한 각국의 현황을 서로 비교하거나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Table 1>의 제안된 의제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²³⁾

이처럼 한 회의에서 건축기념물의 보존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를, 행정적·법률적 제도부터 주변경관의 보존, 건축기념물의 보존과학과 보존기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테네회의가 전무후무한 사례일 것이다. 또 이러한 부문들은 지금의 건축기념물의 보존분야에서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제한된 의제들 중에서 건축기념물의 보존기술에 관한 내용, 즉 보존과학, 현대적 재료, 보존기술, 수리·보강 방법에 대한 각국의 특별한 사례들을 서로 비교하려는 데에는, 결국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복원공사인 아나스티로시스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IMO의 또 다른 의도가 사전에 내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한된 의제에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었던 역사도시에서의 건축기념물의 경관적 보존에 대해 일찍이 주목한 점들은 특필할만하다.

3-2. 아테네회의의 발표내용

제안된 여섯 의제들에 대해 실제로 발표된 내용들은 <Table 1>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곱 부문, 즉 I.원칙 및 총칙(9건), II.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행정과 법률(7건), III.기념물의 재고(5건), IV.수복의 재료(3건), V.기념물의 열화, 처리방법과 과학적 연구(8건), VI.보존기술:특정적 사례들(20건), VII.기념물의 보존과 국제협력(4건)으로 나누어 정리된다.

단순히 발표 건수에 따라 그 중요도를 인정한다면, 원칙 및 총칙(9건)과 보존기술(20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회의의 주된 목적이 건축기념물의 수복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보존기술에 관한 내용이 단연히 많은 것을 감안하면(20건), 결과적으로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복원공사인 아나스티로시스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얻으려는 그리스 측의 의도에 부응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도 했다.

한편 발표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념물의 활용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http://dx.doi.org/10.7738/JAH.2012.21.4.025>

Fig.2 The case of Alhambra palace in Spain (after and before restoration)

만, 그 밖의 의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고, 이러한 성과들은 국제협력을 전제로 하는 IMO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발표내용을 부문별로 주목할 만한 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칙과 총칙에 대하여

먼저 폴 레옹의 논고를 살펴보면, 수복의 발전단계를 경험적 시기, 원칙적 시기, 실험적 시기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지막인 실험적 시기는 보존이 복원을 대체하고, 역사적·예술적 중요성에 근거해서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역사적 기념물의 분류가 더 넓어지고, 역사적 기념물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의 발달, 관광의 역할과 문제, 역사적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 보존활동과 기술의 진보 등이 있었던 시기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아테네회의의 개최를 수복의 발전단계에서 바라보면 지극히 당연한 귀결로 생각할 수 있고, 8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들도 아마도 원칙적 시기와 실험적 시기를 서로 왕복하면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그는 재건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할 수 있지만, 기억을 살리고 형태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했다. 특히 약간의 비용으로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응급조치의 필요성과 위험한 해체공사를 피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의 사용을 옹호하면서 다양한 수복공사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고, 게다가 유적지의 수복과정에서 현대기술의 활용을 강조했다.

한편 이 회의에 참가한 국가별 인원만 보더라도 이탈리아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당시 로마왕립건축학교장이었던 조반노니가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²⁴⁾ 특히 그는 아테네회의에서

24) 아테네회의에서 조반노니의 영향을 소개하고 있는 문헌은 다음과 같다. Cevat Erder, *Our architectural heritage: from consciousness to conservation, museums and monuments XX*, UNESCO, 1986, p.102; L. Santoro, *Il concetto di restauro: contributi metodologici e tecnici(1880-1940)*, *Restauro*, no.43, 1979, p. 38; Rosa Anna Genovese, *Sopra alcuni contributi metodologici e tecnici offerti in occasione della conferenza di atene(1931)*, *Restauro*, vol.43, 1979, p.81; María José Martínez Justicia, *Historia y teoría de la conservación y restauración artística*, Tecnos, Madrid, 2008, p.284; Ceschi, C., *Teoría e storia*

23) Office International des Musées, 앞의 책, p. 401

Fig.3 The case of restoration in Spain (after and before restoration)

유지관리, 수리, 보강을 강조했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필요할 경우에는 현대 기술의 도입을 인정했다. 이러한 작업들의 주된 목적은 구조의 진정성(Authenticità)을 필수적으로 보존하는 것이었고, 예술로서 경력 모두를 기념물에서 존중하는 것이었다. 또 어느 시대에서도 덧붙여진 부가부분에서는 낱짜를 붙이고, 장식보다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²⁵⁾ 게다가 아테네회의 이전의 그의 생각과 활동을 감안해보면, 아테네 결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결국 아테네회의에서는 기념물의 수복에 적용하는 엄격한 일곱 원칙이 강조되었다. ①역사적·예술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건설의 모든 단계들에 대하여 존중할 것, ②개입과 부가를 최소화할 것, ③윤곽을 다시 고치거나 결손부위를 매우기 위해서는 새 부재를 활용할 것, 단 가능한 한 장식 없이 건설의 특징과 일치할 것, ④오리지널 장식 없이 기하학적인 표현을 해야 할 경우에 한해서만 유사한 양식으로 윤곽선을 연장할 것, ⑤ 다른 부재를 사용하거나, 어떠한 장식적 모방 없이 테두리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약어 혹은 비명을 통해 부가부분을 나타낼 것, ⑥기념물의 주변 환경을 존중할 것, ⑦사진²⁶⁾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작업의 상세한 기록화로 다양한 작업 단계를 설명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탈리아의 보이토에서 비롯되는 방법론이 조반노니에 의해 계승되어 아테네회의에서 피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⁷⁾

del restauro, Bulzoni, Rome, 1970, pp.211~213; Carbonara, G., *Avvicinamento al restauro, Teoria, storia, monumenti*, Liguori editore, Napoli, 1997, pp.241~242

25) 유카 요킬레토 지음, 최병하 옮김, 앞의 책, 337쪽

26) 수복에서 사진기술 이용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초기 사례로서는 19세기 중반 비올레 르 뒤의 『프랑스중세건축사전』에서 발견할 수 있다. E.E. Viollet-le-Duc, *Dictionnaire raisonné de l'architecture française du XIe au XVIe siècle*, Tome VIII, p.33~34

27) 중세주의 건축가로서는 프랑스에서는 비올레 르 뒤(1814-79), 영국에서는 존 러스킨(1819-1900), 이탈리아에서는 피에트로 세르바티코(1803-80)와 그의 제자 카밀로 보니토(1836-1914)가 있다. 보이토는 저술가로서 활동함으로써 이탈리아에서 중세주의의 보급에 영향을 준 인물이다. 세르바티코의 후계자로서 베니스 아카데미의 교수가 된다. 1883년 로마에서 열린 제3회 건축가·기술자회의에서 보이토는 고기념물에 대한 수복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여덟 항목

또 고건축보존협회(SPAB)의 사무국장이었던 포워스는 수복의 목적을 고건물을 유지하고 그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으로 명확히 위치 매김을 하면서, 수복할 때 손상 부분과 손실 부분을 복제하거나 위조하는 것을 피하도록 제언했다.

게다가 조반노니와 함께 토레스 발라스, 포워스, 라우텔바흐는 그들의 발표에서, 수복에서 위조의 금지와 진정성의 보존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은 아테네 총론에서 전체 복원의 포기, 정기적인 유지보수체계, 양식적 통일의 배제 등으로 요약되어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조반노니의 생각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수복과 복원에서의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한 위조의 금지와 오해를 일으키는 요소를 배제하려는 자세는 주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진정성의 내용은 유감스럽게도 「총론」에 포함되지 않고, 나중인 1964년 베니스 헌장에서 다루어지지만, 이를 통해 아테네회의의 선진성을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 역사적 기념물의 행정과 법률에 대하여

할코트 스미스 경은 그의 발표에서 1931년에 잉글랜드에서 제정한 고기념물법²⁸⁾을 소개하면서 공공사업청장관의 보존명령을 언급했다. 그리고 펠라티는 부동산 문화재의 확대를 제언했다. 즉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다양한 요소(천장, 창, 문, 막사, 문장 등), 건물의 집합체(장소, 도시의 일부분), 고대의 길에 남아 있는 정원, 샘(분수), 석산 등을 열거하면서 동시에 기념물 주변의 보호와 이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을 주장했다.

베르디는 1913년의 법률에서 소유자가 거부하더라도 국가가 강제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1927년 7월 23일의 법률에 의해 역사적 기념물의 보충목록에 기재하는 역사적기념물등록제도의 창설을 소개했다.²⁹⁾ 또 역사적 기념

을 제시하고 있다. ①새로운 부분과 오리지널 부분 사이에서 양식을 다르게 할 것, ②사용재료를 다르게 할 것, ③물결과 장식을 제거할 것, ④철거된 옛 부분을 명확히 나타내고 기념물 근처에서 공개할 것, ⑤새로운 각 부분에는 수복 낱짜와 정해진 기호를 각인할 것, ⑥ 기념물에 대한 설명적 비문을 새길 것, ⑦ 작업에서 각 시대의 공사 기록과 사진을 찍고 그것들을 인쇄물로 기록·출판할 것, ⑧ 유지시킬 것(수복한 사실을 알릴 것). Ceschi, C., 앞의 책, p.109; Camillo Boito, *Conservation ou restaurer, Les dilemmes du patrimoine*, Les éditions de l'Imprimeur, 2000, p.41

28) 고기념물법에서는 소유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국회의 승인 없이 보존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고, 의원입법 혹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필요로 했던 보존명령은 이 법으로 인해 공공사업청장관의 권한 만으로도 발령할 수 있도록 되어 절차가 대폭 간략화 되었다. 大橋龍太, 『英國の建築保存と都市再生』, 鹿島出版會, 2007, p.131

29) 이 보완제도는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전단계로서의 의미가 강한 것이었다. 즉 등록의 단계는 일시적인 것으로, 결국은 지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다. 결국 지정과 등록제도를

ISSN 1588-1142(Print)

물의 주변환경이 미적, 역사적 상태를 훼손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그 주변을 경승지로 지정할 수 있는 1930년 5월2일의 경승지(景勝地)에 관한 법률과³⁰⁾ 역사적 기념물과 경승지의 주변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zone de protection)을 소개했다.

닌스는 1931년 벨기에의 법에서 소유권에 관계없이 건물과 기념물의 법적 보호를 소개했다. 여기에서는 각국의 역사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히 법적으로 기념물 보호를 위한 소유권의 제한과 통제, 그리고 기념물의 주변 환경의 보호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총론」에서는 사적 소유권에 대한 공동체의 특정한 권한과 비상시 보존대책으로서 강제지정권과 보존명령의 필요성은 다루고 있지만, 보호구역에 설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변환경의 보호에 대한 문제는 다음의 기념물의 제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3) 기념물의 제고에 대하여

이 회의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건축기념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과 도시의 외형적 특징의 보호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데 있다. 특히 호르타, 니코데미, 렌시의 발표는 도시 규모의 보존에 관심을 나타낸 혁신적인 것이었다. 호르타는 현행 도시계획에서의 죽은 도시와 박물관 도시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주요 주변요소로서 미적 기념물 주변의 공터(l'espace)와 기념물 외곽(l'entourage), 외곽의 주변(Les abords de l'entourage)을 설명했다. 그리고 조망거리와 조망각도에 따른 주변 건물의 규모와 높이, 건축재료의 체계적인 규제의 필요성, 유적지의 공터를 식목으로 채우는 사례를 설명했다.

특히 니코데미는 “도시와 전원에 위치하거나 호반, 강변, 혹은 해변에 위치한 기념물의 환경(분위기)은 모든 기념물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발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각각의 건축기념물은 이들의 고유 법칙에 따라,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와 그것이 건설되었던 시대에 속해 있는 것이다”고 주

완비하게 된다.

30) 정식명칭은 예술적, 역사적, 과학적, 설화적, 회화적 성질을 지닌 천연기념물과 경승지의 보호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protection des monuments naturels et des sites de caractère artistique, historique, scientifique, légendaire ou pittoresque)이다. 여기에서는 ‘역사적, 과학적, 설화적, 회화적’이라는 용어를 통해 기념의 확충으로 인한 보호 대상의 확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역사적 기념물인 교회 주위의 광장, 묘지, 혹은 역사적 기념물인 성곽의 주변 해자, 옹벽을 지정할 수 있었다. 鳥海基樹, 「景勝地」, 『フランスに於ける歴史的環境保全-重層的制度と複層的組織、そして現在』, 東京文化財研究所, 2005, p.123

<http://dx.doi.org/10.7738/JAH.2012.21.4.025>

장했다.

이것은 어떠한 건물도 주변환경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은 없고, 역사적 기념물이 되면 주변과의 기능적인 연결은 물론, 예를 들면 도시에서는 그 전체성의 조성으로서, 혹은 전원에서는 주위 풍경과의 결합체로서 주변 없이는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 도시에서 현재의 요구에 따라 철거지역을 정하거나, 죽은 도시로 전락할 수 있는 박물관 도시의 위험성, 기념물의 현대생활에 적용 등은 당시 대두되기 시작한 역사적 도시의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총론」에서는 실제로 주변지역의 홍보물 억제, 보기좋은 전신주 설치금지, 소음발생 공장, 높은 구조물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조망거리와 조망각도에 따른 주변 건물의 규모와 높이, 건축재료의 체계적인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수복의 재료에 대하여

조반노니는 그의 발표에서 구조적으로 손상 입은 기념물을 보강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의 사용을 권고했다. 이것은 철근콘크리트가 지닌 재료상의 장점, 즉 시멘트를 분사할 수 있는 재료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인해 인장력을 얻을 수 있고 가소성이라는 엄청난 이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는 벽체, 지붕, 지반, 비가시적인 부분에서의 보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했다.³¹⁾

오테로는 기념물의 보존 상태에 따른 개입의 범위와 방법, 수복작업에서 기본적인 필수적인 석재 풍화의 원인과 성질 분석, 건물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사진측량, 특수물탈, 혹은 화학용제의 주입으로 불완전한 조적구조의 강화, 철근콘크리트에 의한 붕괴부분의 보강을 설명했다.

파케는 철근콘크리트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숨겨진 구조에 한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했고, 그 사례로서 벽체, 기초, 보, 지붕, 테라스, 중탑을 들었다.

이처럼 발표자 모두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닌 건축기념물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철근콘크리트의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철근콘크리트의 신중한 사용, 보강작업부분의 비가시성, 해체 및 재조립보다는 보강작업을 우선시하려는 이러한 생각들은 「총론」의 기념물 수복에서 그대로 반영되지만, 그 중에서 현대적 건축보강기술로 대표되는

31) 라퀼라의 콜레마조 교회의 파사드 부분, 로마의 알바니 궁전의 벽과 지붕, 베니스의 중탑, 메시네의 돔 등이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기념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강의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칼리구라의 회랑과 피사의 탑을 들고 있다.

Fig.4 The deterioration types of stone(left) and the strengthened case with iron in basilica of Saint-Marc(right)

철근콘크리트를 건축기념물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은 주목할 만하다.

(5) 기념물의 열화에 대하여

키에슬링거는 그의 발표에서 석재의 물성에 관한 암석학적 실험, 석재의 손상과 열화를 초래하는 요소(기후, 공사의 실수, 구조, 빗물, 새의 분비물, 식물 등)의 연구와 타분야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설명했다. 그리고 셀레리에는 석재 훼손의 원인을 대기환경의 변화로 이해하고, 풍화현상에 관한 연구, 물리적·화학적 풍화의 진행과정에 대한 실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리바스-프라다는 파티나의 구성물 연구, 파티나의 형성 과정, 파티나의 재구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슈미트는 비둘기(분비물, 새집)에 의한 석재의 열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저전압 전선망의 설치 사례를 소개했다. 브리트너는 석재의 수증기 세척작업을 소개하고, 피라텔페우스, 마랑고니, 비트리는 대리석의 보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이처럼 발표자들은 석재의 열화와 풍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면서, 이를 위해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역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총론」의 고대기념물의 열화에서 현지보존이 불가능할 경우 주형을 뜰 것을 권고하고, 방법 결정시 물리학, 화학, 자연과학분야의 전문가와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과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지만, 기념조각상의 보존에 대한 연구와 실험보다도 통상적인 예방조치와 현행방법의 유지에 머문,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6) 보존기술에 대하여

아테네회의에서는 보존기술의 특별 사례에 대한 발표가 월등히 가장 많다. 이는 발표자의 현장경험을 통해 실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이 틀림없다.

먼저 이들 중에서 마이우리는 헤르쿨라네움의 발굴사례를 통해 복원된 유구에서는 오리지널 재료와 구별하기 위해 벽돌과 석회화를 사용했고, 특히 발굴된 다양한 목재부재와 목조유구의 보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Fig.5 The case of Castel Nuovo in Naples(after and before restoration) and the strengthened monument of Saqqarah (after restoration)

로어는 출입구 주랑의 복원 공사에서 내부보강재로서 벽돌을 사용했고, 인조석재는 돌가루를 사용하여 모방했으며, 보다 더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 백시멘트의 사용을 언급했다. 게다가 석재에 파티나를 입히기 위해 황산철을 가볍게 칠하고, 지붕과 다른 노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당시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파라핀 제품을 사용했다. 페르니에는 이전의 아더 에반스 경의 작업방법을 설명하면서 프레스코화의 복원에서 철근콘크리트의 사용을 설명했고, 결국 유적지의 특성에 맞는 보호방법의 필요성과 복원보다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라노스는 아크로폴리스의 프로필레아, 에레크테이온, 파르테논의 복원 과정을 언급하면서, 프로필레아에서 기둥의 재구축과 천장부분에서의 철재보의 사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에레크테이온의 복원에서는 카리아티드 입구의 기초에 대한 이전의 보강, 천장의 중량경감, 절단부위의 철물연결, 대리석에 의한 결손부위의 보충을, 파르테논에 대해서는 손상 부위를 대리석으로 교체하고, 북측 주랑의 복원에서는 기둥 드럼에 채색 콘크리트를 사용한 석재 사용, 파르테논의 출입부 상부의 복원 등을 각각 설명했다.

무엔은 아시아의 기념물로서는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의 자바 유적의 보존 상황을 발표하면서, 기념물 열화의 주요 요인(식물, 빗물, 지진 등), 유적의 정지작업, 산채한 부재의 분류작업, 손상부위의 체계적인 해체작업, 장식부분에서의 신부재의 사용을 설명했다. 또 복원에서는 진정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학술적 확실성을 확보하고, 미적 조화를 기본조건으로 신석재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안티는 새로운 요소의 최소화와 보충부재는 인식이 가능하도록, 벽돌 혹은 진한 석재를 사용하고, 장식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키에리치는 캄파니아의 작업에서 원래의 건축설계를 변형시킨 부가부분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원래의 양식에 조화된 부가부분에 대해서는 보존하는 생각을 역설했다. 즉 무분별한 부가와 증축, 불량재료, 성급한 작업으로 인해 건축이 붕괴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Fig.6 Candi Sari in Java (after and before restoration)

또 나폴리의 기념물 수복에서는 구조보강을 위해 철근콘크리트의 사용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례로서는 산 로렌쥬 교회, 만두리아의 종탑, 인코로나타 교회를 들었다.

스로토베르는 철제격쇠가 석재의 심각한 열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강조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납으로 봉하도록 권고했다.

이처럼 각각의 사례를 통해 현대기술과 현대재료로 통용되는 시멘트와 철제의 사용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유적지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기술적 작업에서는 고고학자와 건축가의 긴밀한 협조관계와 발굴유적의 복토와 정밀한 기록작성 등이 「총론」에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기념물의 결손부위에 대한 처리에서 로어의 돌가루를 사용한 인조석재, 고색을 얻기 위한 황산철 사용, 바라노스의 채색시멘트 사용은 건축기념물의 진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총론」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유적지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기술적 작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테네회의까지 고고학적 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이 국제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새로이 필요했다.

(7) 기념물 보존과 국제협력에 대하여

케파흐는 기념물 보존에서 국가행정기관의 역할과 문서에 관한 국제협력의 활용, 필레의 사례를 통한 고고학 유적군, 특히 캄보디아의 크메르 유적과 마야 유적에 대한 국제적 관심, 국제적 연대의 정신과 발굴현장의 문제점, 기념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케라모포로스는 그리스 사례를 통해 고고학 센터의 발전에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발굴방법론과 성급한 발굴, 발견부채의 보존과 발굴의 재정적·행정적 문제점, 국제적 통제와 통합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녹크는 기념물의 존중, 교육적 연구의 대상, 공공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호트케흐는 기념물 보존의 모든 문제점을 다루는 출판물의 관심, 정기간행물의 규격과 제안, 그림과 사진학적 기록의 중요성, 기념물과 관련된 국가 아카이브의 조직, 기념물에 관한 정기간행물, 에세이, 작업의 집중화, 진행 중인 조사와 작

Fig.7 Parthenon and Erechtheion in Acropolis (after and before restoration)

업에 관한 보고서의 정기 간행물, 다양한 시점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총론」의 기념물의 보존과 국제협력에서 다른 부분들보다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 졌다. 그 배경에는 기념물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의 필요성, 기념물 보존을 통한 기술적·윤리적 협력, 교육의 역할, 국제적 문서화작업의 유효성 등은 국제협력을 전제로 하는 IMO의 향후 활동과 일맥상통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4. 아크로폴리스의 아나스티로시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복원공사의 한 방법인 아나스티로시스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얻으려는 그리스의 숨은 의도는 「아크로폴리스 기념물의 아나스티로시스에 관한 보고」의 형태로 소정의 성과를 얻게 된다.

회의 참석자들의 주요한 관심 중에 하나는 토목기술자였던 바라노스에 의해 실행되고 있었던 아나스티로시스(32)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32) 바라노스는 아크로폴리스 보고서에서 “그리스어인 아나스티로시스(Anastylosis)는 엄밀히 말하면 원주의 다양한 더듬을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확대 [해석] 하면 건물의 고고학적 부분을 재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Nicolas Balanos, *Les monuments de L'Acropole, Relèvement et conservation*, Paris 1936, p.7; 영어와 독일어는 ‘Anastylosis’, 프랑스어는 ‘Anastylose’, 이탈리아어는 ‘Anastilosi’로 각각 표기되고 있다. 아나스티로시스(ἀναστίλωσις)라는 용어는 원래 그리스에 존재하지 않고, 단지 근대 그리스어에 ἀναστίλωσις라는 용어가 있고 이것은 동사 ἀναστίλω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ἀναστίλω는 접두사 ἀν(들어올리는, 위로)와 동사 στήλη(돌의 직립재 stele)로부터 파생된 동사 στήλω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원래의 의미는 돌의 직립재를 들어 올림을 뜻한다. 따라서 표기는 Anastelosis(영어), Anastelose(프랑스), anastelosi(이탈리아)로 각각 바꾸어야 한다고 요르단 디마코푸로스는 주장하고 있다. 단,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익숙해진 아나스티로시스(Anastylosis)라는 용어를 편의상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 Jordan Dimacopoulos, *Anastylosis and Anasteloseis*, Icomos Information, Jan./Mar. n°1, 1985, p.24.

한편 레옹은 아나스티로시스를 현존하는 부채들 위에 세워진 기념물에 나타나는 완전한 재구축의 개념을 철저히 거절하는 용어로

Fig.8 The roof of Propylaea and the statues of Erechtheion(the strengthened case with iron beam)

왜냐하면 이미 아크로폴리스의 복원사업은 이 회의의 중심적인 논쟁거리로 자리 잡았었고, 이 때문에 아테네에서 개최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측은 아크로폴리스에서 진행 중이었던 복원사업에 대해 긴 논쟁 끝에 부분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카로가 의장을 맡은 전문가회의가 10월25일 일요일 아침 현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서두에서는 바라노스에 의해 프로필레아와 파르테논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었던 아나스티로시스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각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사항이 논의되었다.³³⁾

①파르테논의 북쪽 기둥과 남쪽 열주의 재구축, ②대체 기둥 드럼에 대한 코팅으로서 시멘트의 사용, ③철제 껍쇠 사용에 대한 금속 선택, ④아나스티로시스 작업의 보완물로서 주형(鑄型) 사용의 타당성, ⑤풍화에 대한 프리즈의 보호.

전문가들은 구부재와 신부재를 구별한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파르테논의 프리즈를 현위치에서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인 구조체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동감했다.

그러나 파르테논에서는 철제껍쇠와 철근콘크리트의 사용과 함께, 아나스티로시스의 작업에서 보완물로서 주형의 사용에 대한 긴 논쟁이 시작되었다. 조반노니와 키에리치는 기둥의 드럼과 엔테블러처의 충진 재료로서 시멘트 사용을 비판하면서, 1823년 로마의 티투스 아치에서 발라디에가 수복한 것처럼 오리지널 대리석과 색상이 약간 다른 석회석을 사용함으로써 구별할 것을 제안했다.³⁴⁾

이해하고 있다. André Charbonnier, *Les monuments de l'Acropole et leur Anastylose 1898-1932*, Gazette des beaux-arts, n°106, Novembre 1932, p.206

33) Office International des Musées, 앞의 책, p.406~407

34) 발라디에는 티투스의 아치를 수복할 때 오리지널 대리석과 조화되도록 표면을 석회화로 표면마감을 했으며, 신부재의 표면을 장식 없이 마감하여 관람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했다. Derek Linstrum, Guiseppe Valadier et l'Arc de Titus, Monumentum 25(1), 1982, p.43~71

Fig.9 The new drums in columns of Parthenon and the strengthened case with steel concrete

또 그들은 녹슬기 쉬운 철제껍쇠의 사용에 대해 보류하면서, 대체 재료로서 풍화에 강한 금속재료를 추천했다.³⁵⁾ 주형의 사용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주의와 사용하기 전에 사전시험을 권고했지만, 재료의 호환성과 적당한 선택에 대한 보류는 「총론」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마무리된다.³⁶⁾

이와 유사한 논쟁은 크루즈 여행시 다시 반복된다. 이번에는 파이스토스의 크레타 궁전 유구와 크노소스의 발굴방법과 전시에 관한 서로 대조적인 접근방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파이스토스의 사례는 할브헤르와 페르니에가 지휘한 이탈리아 팀이 작업한 것으로 사료적 가치의 존중과 철학적인 접근방법을 보여주는 반면에, 영국의 에반스 경이 지휘한 크노소스는 불성실함으로 가득 찬 반역사적이고 반과학적인 방법으로 복원된 것으로 평가되었다.³⁷⁾

결국 아크로폴리스의 아나스티로시스와 크노소스에 대한 공통적인 논쟁은 결손부위와 복원의 범위에 대한 정당성에 있었고, 특히 조반노니가 주장한 진정성의 문제, 더 나아가 수복의 이론에서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시키기

35) 기념물에 철제 사용에 대한 우려는 1895년 조셉 두(Joseph Durm)의 조사를 통해 철이 가까운 장래에 야기하는 위험성에 대해 이미 경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노스는 이것을 수복공사에 계속 사용한다. マノリス・コレース, 「パルテノン神殿の修復について」, 『都市と文化財 アテネと大阪』, 東信堂, 1998, p.26; Ministry of culture committee for the preservation of the Acropolis monuments, *The Acropolis at Athens conservation restoration and research 1975-1983*, 1985, p.18

36) 이러한 애매모호한 표현은 《아테네 현장》의 IV. 기념물의 수복 항목에서 “전문가들은 특히 철근콘크리트 등의 근대적인 기술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사용을 동의했다”라는 내용과 현장의 5항에 있는 “근대적인 기술과 재료를 수복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 나타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신중한 사용(the judicious use)”과 “사용할 수도 있다(may be used)”는 표현 사이에서 불분명한 언어적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37) 조반노니는 에반스의 개입을 기념물 복원의 극단적인 사례로서 기념물 전시의 연극적인 성향이 통제되지 않고, 진정성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은 사례로서 평가했다. Giovannoni, La Conferenza ..., 앞의 책, p.414

ISSN 1588-1142(Print)

위해 복원을 포함한 개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과제를 남기는 결과를 낳았다.

5. 아테네 회의의 성과

아테네회의의 결론을 통상 아테네 현장으로 호칭하고 있지만, 현장이라 불리는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다.³⁸⁾ 어쨌든 아테네회의의 결론은 현장으로서 당시에 채택되지 않았었고, 단지 회의의 결론으로서 권고되었기 때문이다.³⁹⁾

그럼에도 IMO는 아테네회의에서 발표된 내용과 아크로폴리스의 현지에서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테네회의의 결론을 도출하지만, 다양하고 폭넓게 논의된 내용에 비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축소된 형태로 반영된다.

그리고 IMO는 아테네회의 직후에 국제적 협력 속에서 건축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적기념물국제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아테네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반노니는 이듬해에 아테네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탈리아의 수복현장을 작성하여 공포한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IMO는 고고발굴의 여러 문제점들을 다루기 위해 또 다른 국제회의를 준비한다. 즉 역사적기념물국제위원회의 후원과 이집트 정부의 원조 하에서, 1937년3월 카이로에서 발굴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고고발굴의 논점은 ①법률적·사법적 문제, ②기술적 문제, ③국제적 기록화, 3부분으로 나누어져 논의되었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1939년 『고고발굴의 기술 매뉴얼』로 출판되었다.⁴⁰⁾

한편 아테네회의에서 결정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시 때의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내

용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건축기념물과 도시가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회의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고 침묵했었다.

이후고 IMO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과 무력분쟁시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문서의 작성을 개시한다. 조약 초안⁴¹⁾에서는 분쟁시에 예측되는 문화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아테네 「총론」에서 권고된 일상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조약국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IMO와 협력해 나가도록 호소되었다. 조약 초안은 1938년 국제연맹에 제출되었지만, 채택되기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이러한 작업은 중지되고, 결국 전후에 유네스코가 이를 계승하게 된다.

6. 결론

건축기념물의 보존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를 행정적·법률적 제도부터 주변경관의 보존, 보존과학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룬 아테네회의는, IMO가 추구했던 국제적 협력 속에서 건축기념물의 전반에 걸친 법률적·이론적·실제적 측면을 논의한 것으로, 과학적 원칙에 근거한 실무와 학제간의 협력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또 아테네회의에서 다루었던 의제들은 지금의 건축기념물의 보존분야에서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테네회의의 결론은 참가국의 한계성과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이러한 성과를 더 확장시킬 구심력을 잃어버림으로써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테네회의에서 논의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아테네 결론에 반영되지 못한 혁신적인 개념들은 향후 건축기념물의 보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것으로서는 특히 도시의 시간적·공간적 맥락을 단절시키는 기념물 근처의 개발에 관한 규모와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규제와 필요성, 보호구역의 필요성, 주변경관의 보존, 사유권의 제한, 건축재료의 체계적인 제한, 기념조각상의 보존에 대한 연구와 실험의 중요성, 발굴방법과 기술의 필요성, 진정성의 문제점, 기념물 개념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아테네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나중에 역사적 기념물국제위원회 설치, 이탈리아의 수복현장 작성, 고고

38) 통상 《아테네 현장》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문서가 1934년 근대건축국제회의의 제4차 회의가 아테네에서 개최되어 작성되었기 때문에 가끔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1928년 설립된 근대건축국제회의(CIAM)의 제4회 회의가 1933년 아테네에서 개최되었을 때 작성된 것으로 이 회의의 주제는 기능적 도시였지만, 여기에서 정리된 아테네 현장에도 도시의 역사적 유산에 관한 항목이 있다. 르 코르뷔지에 지음, 이윤자 옮김, 『아테네 현장』, 기문당, 1995, p.63~66

39) 정확히 말하면, 이 회의의 결론은 1932년 7월23일 국제지적협력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결의(Résolution adoptée par la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coopération intellectuelle le 23 Juillet 1932)와 그 직후 1932년 10월10일 국제연맹회의에서 채택된 권고(Recommandations de l'assemblée de la société des nations adoptées le 10 Octobre 1932)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며, 여기에서는 현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40) Office international des musées, *Manuel de la technique des fouilles archéologiques*, Paris, 1939

41) *Convent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monuments et œuvres d'art au cours des conflits armés*, Mousion, n°43-44, office international des musées, Paris 1938, p.310~320

발굴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과 무력분쟁시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문서의 작성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와 그 밖의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발생한 논쟁은 결손부위와 복원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정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조반노니가 주장한 진정성의 문제는 더 나아가 수복의 이론에서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시키기 위해 복원을 포함한 개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문제였으며, 동시에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기술의 적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아나스티로시스의 한계이자 현대의 복원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결국 아테네회의의 결론은 건축기념물의 수복과 복원에 관한 새로운 문제의 시작과 새로운 진보의 출발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Office International des Musées, *La Conservation des Monuments d'Art et d'Histoire*, Paris, 1933
- Françoise Choay, *La Conférence d'Athènes, Sur la conservation artistique et historique des monuments(1931)*, Les Éditions de l'imprimeur, 2002
- Françoise Choay, *The invention of the historic monu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G. Baldwin Brown, M.A., *The Care of ancient monuments, An Account of the legislative and other measures adopted in European countries for protecting ancient monuments and objects and scenes of natural beauty, and for preserving the aspect of historical cities*, Cambridge at the university press, 1905
- A. R. Powys, *Repair of ancient buildings*, J.M. Dent & sons Ltd., 1929
- Paul Léon, *Les monuments historiques: conservation, restauration*, Paris, 1917
- Paul Léon, *La vie des monuments Français destruction Restauration*, Éditions A. ET J. PICARD ET CIE, Paris, 1951
- Ceschi, C., *Teoria e storia del restauro*, Bulzoni, Rome, 1970
- Nicolas Balanos, *Les monuments de L'Acropole, Relèvement et conservation*, Paris, 1936
- Camillo Boito, *Conservation ou restaurer, Les dilemmes du patrimoine*, Les éditions de l'Imprimeur, 2000
- 유카 요킬레토 지음, 최병하 옮김, 『건축문화유산의 보존과 역사, 과거와 현재』, 기문당, 2009
- Rosalia Varoli-Piazza, *Riflessioni sulle Carte, Raccomandazioni e Documenti internazionali, Monumenti in bronzo all'aperto: esperienze di conservazione a confronto*, Nardini Editore, 2004, p.24
- Cristina Iamandi, *The Charters of Athens of 1931 and 1933, Coincidence, controversy and convergenc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aeological sites, vol.2, 1997, p.17-28
- Rosa Anna Genovese, *Sopra alcuni contributi metodologici e tecnici offerti in occasione della conferenza di Atene(1931)*, Restauro, no.43, 1979, p.77-134
- Andrzej Tomaszewski, *From Athens 1931 to Venice 1964. History and actuality*,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COMOS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for the Theory and the Philosophy of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2008 Vienna, Austria, p.107-114
- G. Giovannoni, *La Conferenza internazionale di Atene pel restauro dei monumenti*, Bollettino d'Arte, Fasc. IX, Roma, 1932, p.408-420
- L. Hautecoeur, *Conférence internationale d'experts pour la protection et la conservation des monuments d'art et d'histoire*, Gazette des Beaux Arts, Paris, 1932, n°106, p.161-163
- Cevat Erder, *Our architectural heritage: from consciousness to conservation*, museums and monuments XX, UNESCO, 1986, p.102
- L. Santoro, *Il concetto di restauro: contributi metodologici e tecnici (1880-1940)*, Restauro, no.43, 1979, p.38

접수(2012. 2. 15)

수정(1차: 2012. 7. 5)

게재확정(2012. 7. 20)